



디디 위베르만에게 말해지지 않은
것들의 잔해를 발굴하여 배제된
자들, 잊힌 자들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역사가들의 작업과 시각적
자료를 몽타주하는 이미지 창작자의
작업은 동가적이다.

시각 디자이너란 이미지를 다루는
업이다. 다수의 이미지를 가공하고
재구축, 생성해낸다.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디지털 이미지가
편치는 세상 속에 있다. 이제는
이미지의 팽창은 더욱이 거대하다.
그럼에도 각각 이미지의 효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대상을 하나하나 뜯어보기엔 팽창의 속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에 대해 꽤나 무지한 편이다. 과연
우리가 다루는 이미지가 주는 영향력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
본 작업은 이러한 이미지 윤리에 대한 고찰로 부터 출발했다. 이미지 윤리학을 다루는
인류학자 디디위베르만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의 이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한
진정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미지 문제에 대한 고발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 시각적 소스를 다루는
이들에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AI) 이미지이다. 쉽게 양질에 실사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플랫폼(ChatGPT, Bing, etc.)이다. 몇 자의 줄글을
넣으면 바로 원하는 비주얼을 뽑아내어 준다. 이는 스톡 이미지로 이를 수 없던 자유도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AI 이미지는 특정 직업군과 더불어 다양한 대중에게도 무한한
소스를 획득할 길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이미지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고정관념, 편견에 대한
요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스테레오 타입은 인공지능 학습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고 한다. 즉, AI에게 학습시키는
이미지의 양이 증가할수록 이미지는 편향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흑인 의사가 백인 아동을 진찰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프롬프팅에 적용했을 때, 백인
의사와 흑인 아동으로만 나왔던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유는 AI에게 고정관념을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곧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을 저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딜레마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미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미지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을 안 하는 것 또한 불가한 상황.
이때 낯 것의 이미지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지사 이미지를 사용하는 자들의
몫이다. 과연 이 이미지를 어떻게 진실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고민해 보았을 때,
본 수리는 디디 위베르만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디디 위베르만이 말하는 이미지와 변증법

디디 위베르만은 합일된 이념적 표상에 대한 문제를 고발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징으로 변질된 이미지를 말한다. 특히, 민중을 중심으로 이 상징에 대한 논의를 말하고
있다. 민중의 이상적 상징, 즉 완벽한 민중, 올바른 민중은 정치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보다는 외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상위베르만에게 이미지는 오히려
안정보다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힘(물성)을 지닌 것이라 말한다.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기존의 세계에 경각심을 제시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미지를 다루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면 표상화된 즉 상징으로
변질된 이미지를 진실된 이미지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까? 디디 위베르만은 이
문제에 대해 변증법이란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 반, 합을 말하는 헤겔의 변증법과 디디
위베르만의 변증법은 조금 다르다. 그의 변증법은 '두 이미지의 차이를 해소하는 종합의
이미지가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이미지의 차이를 드러내는, 작용으로서의
이미지'라고 한다. 이질적이고 전시대적인 이미지들의 집합이 현재 이미지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드러날 필요는 없다. 오류를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단번에 전달되는 경각심이 곧 합이자 그가 말하는 이미지의
물성이 된다.

작업 "가짜와 진실: 이미지"

이번 작업에는 역사적인 사진, 일상적인 사진을 포함하여 인공지능이 제작한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였다. AI 이미지는 디디 위베르만의 주장하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일 것이다. 그의 저서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에서 위베르만은 존더코만도의
사진은 현장의 현실감과 급박함을 가졌기에 진실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이미지는 '가짜'나 다름없다. 이들은 오직 만들어진 가상의 것이기에
현실감도 급박함도 없다. 그러나 다량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의가 있다. 또한, 가장 진실하지 않은 이미지가 가지는 문제를 오히려
진실한 이미지와 비교 분석하는 변증법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AI 이미지는 시간이 흐르며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아카이빙함으로써 이미지의 진실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래로 나아가는 이미지인 AI 이미지가 곧 지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미래의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이 작업은 앞으로 이미지 사용 행위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작업을 끝내며

앞선 자료에서 언급된 우려를 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우리가 인공지능 이미지를 빌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 대상을 '상징'하는 이미지 소스를 구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거나, 특정 행동을 하는 대상이 필요한 상황 말이다. 그 결과의 인상이 보는 이로 하여금 확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편견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해보였다. Adobe와 Bing을 사용했을 때, Bing의 경우가 표상적 이미지가 자주 제작되었다. 덕분에인지 확실히 명확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다. 성적지향성을 프롬프팅에 넣었을 경우를 보면, Adobe의 이미지는 사실상 인류, 사람이라는 워딩을 넣었을 때와 차이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결국 이 작업은 인공지능의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집합되어 있는 군상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과도하게 상징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개인의 개성을 억제하는지, 혹은 그 상징 속에 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등. 우리는 이 이미지들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각각 이미지를 차지하는 인물과 대상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한다. 이미지의 시각적 민감도를 넘어 윤리적 민감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이번 수리의 목적임을 밝히며 작업을 마무리한다.

he work of historians who make up the archives of those who were excluded by excavating the remains of what was not told to Georges Didi-Huberman and image creators who montage visual materials are equivalent.

visual designers do the business of dealing with images. A large number of images are processed and generated. It is a job in the middle of the world where digital images of the 21st century prevail. And

the expansion of the image is getting bigger. Nevertheless, there is not much room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each image.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keep up with the speed of expansion to find out the target(image) one by one. That's why we are so ignorant about the new image. Have you ever wondered how much influence the image we deal with has? This work began with a consideration of image ethics. Based on the study of Didi-Huberman, an anthropologist dealing with image ethics, I talk about a methodology that builds a true image, including raising questions about modern images.

accusation of image problems

What kind of authority does the image we use hav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for people dealing with visual sources these day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mages. It is a new technology platform (ChatGPT, Bing, etc.) that allows you to easily obtain good and realistic images. If you add a few lines of characters, they will immediately bring out your favorite visuals. This provides a degree of freedom that stock images could not achieve. As such, AI images provide a way to acquire infinite sources for various publics along with certain job groups.

However, many problems have been raised with this image. According to the 2022 report by the Software Policy Institute, images created with generative AI contain a large number of elements against stereotypes and prejudices. In addition, this stereotype is said to be stronger as the amount of big data under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increases. In other words, as the amount of images that AI learns increases, the image evolves in a biased direction. For example, when "black doctors examine white children" was applied to prompts several times, there were cases in which only white doctors and black children appeared.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correct this. The reason is that programming AI to remove stereotypes, in other words, reduces the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s is not an easy dilemma.³³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have problems that have not yet been solved. This means that it can be a problem to overissue this image. However, it is also impossible not to use it. Naturally, it is up to those who use the governor's image to

guide the image of life in the right direction. When we think about how to lead this image in the true and right direction, we will discuss it based on Didi-Huberman's theory.

Images and dialectics spoken by Didi-Huberman

Didi-Huberman accuses the issue of unifying ideological expression. He says the truth turns into a symbol. In particular, he explains his theory of image around the PEOPLE. He argues that it is a problem to create an ideal symbol of the PEOPLE, namely the perfect PEOPLE and the right PEOPLE. Rather than resolving political differences, this symbol encourages PEOPLE to focus only on ideals and turn away from solving problems. For him, the image is not stability. It is as physical properties. In other words, images can play a role in visually presenting vigilance to the existing world and recalling problems.

Therefore, the act of dealing with images is very important. Then, how can we transform a represented, or symbolized image into a true image? Huberman presents dialectics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general dialectics consisting of positive, semi, and sum are slightly different from those designed by Huberman. His dialectic is not a comprehensive image that solves the difference between two images, but an image that sh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mages. In other words, the list of different and exhibition-like images makes it seem that some mistake can be pointed out. And this point becomes a property that evokes the alertness mentioned earlier.

Work "True image that started with a fake"

This work used many image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historical and everyday photos. The AI image will be far from the truth claimed by Didi Huberman. In his book, "Images that trampled everything," Huberman noted that John Durkomme's photographs meet the conditions of authenticity because they have a sense of reality and urgency in the field. From this point of view, AI images are nothing but "false." Since these are just virtual things, there is no sense of reality or urgency. However, discussing images that are used in large quantities is meaningful in any way. In addition, dialectics that compare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least true image with the true image would be quite effective.

AI image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use over tim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ind the truth of the image by archiv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ogether. This is because the image of AI, which is moving forward, can be said to be the closest future that can be seen from now on.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work will positively change the behavior of image use in the future.

closing

I felt that the concerns mentioned in the previous data were inevitable. Most of the time we borrow artificial intelligence images, it is probably to find an image source that "symbolizes" a particular object. For example, a situation in which an image of a particular country is needed or an object to be acted upon is required. It seemed easy to use a kind of prejudice as a means to ensure that the impression of the result was conveyed to the viewer. When using Adobe and Bing, Bing's case often produced representative images. Perhaps because of this, you can get a clear image. In the case of sexual orientation in the prompt, Adobe's image is virtually no different from that of humans and people.

In the end, this work must get out of the discussion about the func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what we can feel in the group of images. How much an overly symbolic image suppresses an individual's personality, and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objects that are not even included in the symbol? As people who deal with these images, we must find ways not to alienate the person and the object that occupy each image. It is to increase ethical sensitivity beyond the visual sensitivity of images. I will finish the work by clarifying that this is the purpose of this repair.